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이름	김나경		
학부(전공)	프랑스어문화학과/ 한국어문학부	학년	4
파견교에서의 소속 및 전공	연극 Arts du spectacle		
수학기간 (정확한 날짜 기입)	2022년 9월 5일 ~ 2023년 1월 14일		
이메일	nakung6896@gmail.com		

▣ 파견교: Paris X Nanterre

▣ 파견국가: 프랑스

▣ 파견학기: 2022 -2학기

작성 전 꼭 읽어주세요!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수학보고서는 귀국 후 4주일 이내에
SnoWe>숙명SNS>교류/봉사후기/교환학생 게시판에 업로드 합니다.
<https://snowe.sookmyung.ac.kr/bbs5/boards/exchange>
2. 파일명 제목: 대학명_파견학기_이름
(예) ABC Univ_2022년 2학기_김숙명
3. 게시글 제목: [국가] 대학명 파견학기 이름
(예) [미국] ABC Univ_2022년 2학기 김숙명
4. 제출기한: 귀국 후 4주 이내 (미제출시 학점인정 불가)
5. 수학보고서는 향후 프로그램 지원자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니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기본 정보

■ 우편 주소: 200 Av. de la République, 92000 Nanterre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arisnanterre.fr/>

<https://maintenance-ent.parisnanterre.fr/> - 약간 숙명포털 같은 사이트

■ 위치 및 교통편: RER A 타면 낭테르 대학역이 있습니다. 내리면 캠퍼스에는 5분 안에 도착하지만 캠퍼스 자체가 큰 편이라 건물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걸립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학교에 bar 겸 클럽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파티가 있고, 지하철 막차 시간까지 운영 후 닫습니다. 교환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RER A 선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으니 유의하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헷갈려 지각할 수 있습니다. Grève 가 있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파업이 있는 경우 대부분 미리 공지하거나 출석이 대체되는 등의 처리는 진행해줍니다. 학교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리 안은 아니고 Ile de France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정도인데, 파리 자체가 워낙 작아서 파리 어디에서 출발하는지에 관계없이 5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기숙사에서 약 45분-1시간 정도 편도로 다녔습니다.

■ 기후: 8월 말에서 11월까지의 날씨가 매우 좋고 선선합니다. 도착한 8월 말쯤에는 더위가 많이 잦아들었고, 11월부터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는데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점점 추워집니다. 한국의 추위와 결이 다르지만 해가 나는 일이 많지 않아 비타민 d를 챙겨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반적인 학교 소개: 학교는 매우 큰 편이고 전공이 많지만 영어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어학과 예술사/예술학 수업이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소르본과 같이 명망이 높은 대학은 아니나,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전공들은 꽤나 유명하다는 인식이 있고, 스포츠 센터가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도서관도 매우 잘 되어있고, 도서관 안에는 영화 dvd를 빌려 바로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 상권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두정거

장 전의 라데팡스에 큰 상가지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68혁명의 발생지로 유명합니다. 학교 전반적으로 연극 축제를 진행한다거나 수영장에서 올림픽을 진행하는 등 예체능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는 느낌이 있고 학생들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 좋습니다.

2. 파견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부서/담당자

■ 부서명: Servic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SRI)

■ 담당자: Shuyan BENOIT

(☎ Tél: 01 40 97 58 69

Bâtiment Rémond (A) - 2ème étage - A205(캠퍼스 내 위치)

200 av. de la République - 92001 Nanterre Cedex

■ 담당부서 홈페이지 주소

<https://university.parisnanterre.fr/international-student-studying-at-paris-nanterre/incoming-exchange-students>

3. 대학 주변 환경

학교 주변은 아쉽게도 신도시와 같은 느낌이 강하고 역 위로는 버거킹, 작은 식료품점 작은 서점과 몇 가지 액세서리 샵,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약 5분 정도 걸어가면 몇 가지 식당들이 있고, 해피아워가 있는 바들이 있으나 시간을 즐기거나 '파리생활'을 즐기기에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 근처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매우 신식이고, 빈 가게들을 현재 임대하는 중이고 상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에 한학기, 또는 1년 사이에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 문단만 보신다면 학교에 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낭테르 대학은 매우 큰 부지를 갖고 있고, 학교에 매우 큰 수영장(아쉽게도 올림픽 개최로 사용은 중지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큰 도서관, 세 개의 학내 식당 여러 개여 학교 건물, 학교 소유 바 등이 있어 부족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캠퍼

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처 빵집에서 샌드위치 등을 사서 학교에서 피크닉하기 매우 좋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음료+샌드위치+디저트 세트메뉴 등도 판매하니 참고바랍니다.

4. 수강 과목

■ 수강신청 시기: 현지 도착 후 신청합니다. 학기 시작 이후 약 2주-1달 동안 수강 정정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방법: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오티 첫 날 완료했는데 담당자에게 몇백명 넘는 모든 교환학생 중 네가 첫번째로 제대로 서류를 들고 찾아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강 후 한달이 지나도록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출석 기준은 수업별로 다르나, 주 1회 수업의 경우 3회 이상 빠지면 수업 수강 인정이 불가능하여 그 전에 무조건 수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정정을 하여 첫주 수업을 듣지 못했더라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모두 수기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1차 오티 때 설명해주니, 오티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수강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LA를 작성 후 숙대 국제팀의 도장과 현지 국제팀의 도장을 받고 파견교 수강신청 담당자(저희의 경우 Madame Fathia)의 사무실에서 분반과 수업을 확정합니다.(같은 이름의 수업의 경우에도 분반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오티를 통해 알려주는 사이트로 분반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하니, 되도록 빠르게 신청할수록 덜 기다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관련 사이트: <https://portail.parisnanterre.fr/>

■ 수강신청 유의 사항: 1. TD와 CM수업이 세트로 묶여있는 수업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3ects수업은 Td/CM중 한가지로 설정되어있고 4.5 ects수업이 두개가 세트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 무조건 두 수업 모두 수강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수강신청 후 수강을 정정할 경우 LA를 다시 만들어 숙대 국제팀에서 도장을 받고, 낭테르 국제팀에서 도장을 받은 뒤 수강신청 담당자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즉, 수강신청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업 하나를 그냥 취소하기만 하는 경우 바로

수강신청 담당자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취소한 이후, 꼭 사이트를 통해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름의 수업에 분반만 바꾸려는 경우도 마담 파티아에게 바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일을 반복하는 것 보다 처음에 확실하게 찾아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되는 수업이 있다면 첫주차에 차라리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수업을 먼저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수강한 과목

* 낭테르 대학은 1년/1학기 교환학생에 상관없이 교환학생 기간동안 어학당 수업을 3과목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어학당 수업을 듣고 싶을 경우 어학당에 따로 등록하고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Ecriture creative B2/ Madame Sauvage

- 3번의 글쓰기 과제 중 두가지 높은 점수의 과제로 성적을 매기며, 60줄 가량의 최종 에세이가 있습니다. 3번까지 결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감점은 없지만 초과 결석하실 경우 수업 자체가 valider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업에 빠졌다고 해서 그 주에 제출해야하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개의 과제 중 2가지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야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바쥬 교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하시고, 수업을 알차게 구성해오십니다. 추천 강의를 있다기보다는 Sauvage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학원 수업이 쉽고 의미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저는 교수님의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갔습니다. 글쓰기와 문법이 약해서 쓰기 수업을 싫어했는데 그래도 해당 수업은 이야기 구성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등의 수업으로 진행되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지각에 예민하시니 늦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그냥 편한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이 필요 이상으로 어렵거나 과제가 과중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시면 정말 얻어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mage et Scène B2 - 프랑스 영화 수업입니다. 고전영화와 현대영화를 적절히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2인 1조/ 1인 1조로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영화를 불어로 소개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고 저는 친구와 함께 메기라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대본을 보고 줄줄 읽지 않으면 과제로 큰 감점을 주시진 않습니다. B2 수준의 학생이라면 수업을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에 영화를 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로는 Jules et Jim 을, 기말고사로는 Je vais bien, ne t'en fais pas 라는 영화에 대한 시험을 보았고 영화의 줄거리나 내용에 관한 간략한 정리나, 수업시간에 배웠던 카메라, 연출기법 등에 대한 서술식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수업들 중, 씨네마테크 견학이 있었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

었고, 학교 밖을 나가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티켓 비용을 대준 것으로 알고 있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해당 견학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수업시간 내 진행되었고, 자유관람이지만 입장 전 출석체크를 하셨습니다. 다만 영화에 관련된 용어나 카메라 무빙 등에 대한 용어 등이 있어 수업 자체는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b1-b2수준이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 Français oral C1 – 가장 좋아했던 어학 수업이었습니다. 레벨이 높고 회화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었고 10명 정도의 학생 중 제가 유일한 아시안 학생이었습니다. 역시 Sauvage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한번의 개인발표, 세번의 듣기 평가, 두번의 조별 발표, 평소 참여 점수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점수를 따기 어려웠던 것은 듣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세번 중 상위 성적 2개로 평균을 내며, 발표나 다른 점수로 채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fail을 받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더하여서 첫날 수업에서 b2 수준의 듣기 평가를 보고 해당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짧은 개인 면담이 진행됩니다. 본인이 말하기 실력을 늘리고 싶고 현재 b2를 소지하고 있다면, b2 orale 성적이 평균 이상이라면 저는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수업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낙오자 없이 수업을 진행하시려고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챙겨주십니다. 그 점을 잘 활용하여 프랑스어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수업입니다. 특히 다른 전공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랑스식 노트 필기법,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현지인 같은 표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더라도 구어에서 허용되는 표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지만 사전으로 찾기는 어려운 표현 등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프랑스어에 대한 언어적 뉘앙스, 어감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추천) Arts du spectacle / Madame Larmet – 연극 기본에 대한 수업이며 유일하게 들은 philia 단과대 수업이었습니다. 어학 수업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연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듣고 싶은 수업이었고 다른 과목과 고민하다가 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제목의 수업이 많지만 저는 들으신다면 Larmet 교수님의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스위스 친구가 해당 과목을 다른 교수님 수업으로 들었는데 수업의 질이 많이 달랐다는 후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극학 전반에 대한 수업을 기초부터 진행하시고, 학생들의 토론과 교수님의 설명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총 네 개의 연극을 관람하고 그중 1개로 중간고사를, 나머지 3개 중 하나를 학생이 골라 기말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연극학에 관심이 많고 연출 분석 등에 관심 있으시다면 해당 수업을 강추드립니다. 교수님이 저희가 교환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신다면

pass할 수 있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 덕분에 프랑스의 다양한 극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프랑스어 자막의 해외 작품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4개의 수업을 하루에 한 과목씩 들었음에도 과제나 시험을 보면서 피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 하루 동안 들은 수업 모두를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5. 숙소(Accommodation) 정보

- 숙소 구분: 교외 기숙사, 파리 국제대학촌 기숙사 한국관 cité universitaire
- 신청 시기 및 방법: 매년 2-3월 경에 공지가 떴고, 11-12월 즈음에 1월 입사자 추가 모집을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관 기숙사 사이트에 공지가 뜨며, 지원동기 등을 작성해야하고, 이후 안내된 사항에 따라 cité universitaire 사이트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숙소 비용: 6개월 미만 거주자 630유로, 6개월 이상 거주자 580유로, 보증금은 한달치 월세입니다. 입사시 퇴사 날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하니 입사시에 날짜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하여 4개월 거주시와 6개월 거주시 월세 차이로 금액이 비슷하니 신청시 6개월을 거주하실 의향이 있다면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af는 87유로 받았고, 1년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200유로 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구비시설: 침대1, 옷장1, 책상1, 냉장고1, 기타 빌트인 수납공간, 화장실 및 샤워실 방에 따라 발코니가 있는 경우가 있음.
- 공용시설: 공용 주방
- 기타 유의사항: 기타 기숙사들보다 퇴사 시 에따멜리유와 입사 규칙이 조금 엄한 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치안과 위치, 시설면에서 만족하여 추천드립니다.
- 낭테르에서 제공되는 교내 기숙사도 있고 금액이 매우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베드버그에 관한 리뷰가 있고 크기가 작은편이며 학교 위치가 파리 시내와 멀어서 기피했으나 에라스무스로 온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서 거주하고, 꽤 만족하며 지내기도 하고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걱정되신다면 이곳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월 280유로)

6. Extra-Curricular Activity 및 생활 정보

■ 도서관: 월-토 운영 토요일은 낮까지만 운영. 프랑스식 0층에 비디오테크에서 dvd대여 가능하며 내부에 헤드셋을 대여하여 감상가능한 자리도 있음.

■ 동아리: 1개 스포츠 수업 무료(1학기생 기준) 저는 현대 무용 수업을 들었습니다. 회비가 있고 극단 소속 연극 동아리와 같은데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으니 신청시기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 대상 프로그램: 꽤 많은 편이나 아르바이트로 인해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샴페인 투어, 에트르타 투어, 클럽 파티, 몽생미셸 투어, 네덜란드 등 근교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왓츠앱을 통해 꼭 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기 초에 진행되는 교환학생 대상 프로그램중 가장 유익했던 것은 수강신청 안내 오티와 도서관 투어였습니다. 도서관 투어는 특히 강추드립니다.

■ 보험: Amelie를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따로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qwreou/221667532510>

■ 기타 사항: 개인적으로는 유럽에서 사용하기 좋은 어플들을 몇가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La fourchette (식당 예약 어플) - 당일 이나 전날 예약하는 경우에도 20% -30%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식 혼합요리 프랜차이즈 Léon의 경우 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저렴하게 외식할 수 있어 추천드리고, 예약시간에 조금 늦거나 빠리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과 계산시에 꼭 la fouchette로 예약했다고 밝혀야합니다.

Too good to go - 주변 식당이나 식료품, 마트, 카페, 빵집 등의 떨어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어플입니다. 중식당이나 빵집, 마트 등을 추천드리고, 평점 확인해보시면 괜찮은 식당들의 음식이나 채소 등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CAF – 사이트보다 핸드폰이 조금 더 현재 서류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빠릅니다.

Google Map – 가장 많이 쓴 어플입니다.

Ile-de-france mobilité – 가끔 구글맵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버스 시간이나 지하철 노선들에 관한 길을 더 잘알려주기도 합니다.

Freenow/Bolt – 카카오택시 같은 어플이고 시간에 따라 할인폭이 다르니 더 할인이 잘되는 어플로 확인하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입시 쿠폰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Uber eats / Deliveroo– 유럽판 배달의 민족입니다. 종종 쓸 일이 있습니다.

Le bon coin – 프랑스 당근마켓입니다. 프랑스어 활용하기에도 좋고, 종종 필요하지만 싸게 구입해야할 물건이 있다면 찾아보기 좋습니다.

Francezone/프잘사 – 어플 아니고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입니다. 중고 물품이나 일자리 공고가 올라옵니다. 짐 맡아주는 분들도 계셔서 유럽 여행> 파리 아웃 여행시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7. Culture Shock

식당 예절이 다릅니다. 입장하시면 자리를 안내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웨이터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시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웨이터가 식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고용주의 입장처럼 웨이터를 대해도 되는 느낌이라면, 프랑스에서는 웨이터들이 몇 개의 테이블을 담당하고 나의 공간의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신다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웨이터로 일해보니 내가 이 공간을 조절하고 조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훨씬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노동자가 필요이상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신다면 프랑스의 느리고 여유로운 일처리가 조금은 이해되시고 더 친절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 총 소요 비용

총 합계

약 1600만원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주세요. 아래 기재된 항목 외에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해 주세요!

- 비자, 서류 등 입국 전 절차 비용 : 50만원 (캠퍼스 프랑스, 비자 발급비용 등)
- 숙박비용: 약 450만원
- 항공비용: 약 150만원
- 생활비: 약 500만원 (외식, 여행시 선물, 쇼핑 비용 포함)
- 초기 정착비 : 이불, 소형 가구 및 전자제품, 기초 생활용품 비용 (100만원)
- 여행비용: 약 300만원 (숙박, 교통비 포함)

여행을 자주한 편 아니었고 음식도 만들어 먹거나 거의 학식당 이용했습니다. (국제대학촌 공용 식당이 있어 활용하시는 것 추천)

0-1분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교환학생 장학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소감 및 조언

교환학생이 무조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도 다수 겪었고,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외로움을 견디는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단단해지는 시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지고, 소중한 사람들이 생기고, 인연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도 일을 구해 일했는데, 저는 이부분에 저의 교환생활을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행과 자유시간을 포기해야했지만, 반대로 그 덕분에 일하는 팀이 생기고 동료들 얻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공원에서 언니와 친구와 셋이 마시던 맥주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빠르게 프랑스어를 늘릴 수 있었고, 나 어디가서도 굶어죽지는 않겠다는 확신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교환학생을 망설이는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떠나야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주는 분위별(0-1분위 학생 대상) 장학금

과 교내외 장학금을 꼭 활용하시고 다른 친구들 보다 더 빨리 아르바이트나 외부 생활비 장학금을 모아 교환을 준비하신다면 그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약 2000만원의 외부장학금을 받았고, 그중 15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거의 손을 벌리지 않았고, 가서도 일을 해야 어찌 다 한번 있는 외식을 스트레스 받아가며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한 만큼 제가 프랑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도 교환학생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는 유럽에서도, 프랑스 내에서도 교통의 요충지 입니다. 위치적 장점을 잘 활용하여 유럽 내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의 도시에도 여행을 만히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사진 (용량을 축소하여 아래 표 안에 삽입해 주세요)

기숙사 내부	기숙사 옷장
	
기숙사 외부 전경	파리 시내

